



취약 계층을 위한 만능 해결사

오늘 수리할 곳은 싱크대 배수관과 빨래건조대,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 총 3곳이다. 특히 싱크대 배수관은 작년 겨울부터 물이 새서 가장 불편함이 컸던 곳이다. 이에 고양뚝딱맨 두 명이 싱크대로 다가가 배수관을 살피며 뭔가 상의를 하더니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수도꼭지에서 배수관으로 이어지는 곳 하나가 찢어져 물이 새고 있던 것. 새 배수관으로 교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이어주니 싱크대 밑으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 시원한 물줄기를 확인한 주영배 어르신은 “이제 싱크대에서 편하게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이어서 베란다의 빨래건조대 설치와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 수리에 들어갔다. 빨래건조대는 어르신의 키 높이에 맞춰 설치했고, 현관문 보조장치도 말끔히 수리했다. 3곳의 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의뢰자는 고양시에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어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다. 생활복지119 ‘고양뚝딱’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관할 동 통반장, 보호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 전화 상담으로 민원을 확인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 후 작업에 들어간다.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

생활복지119사업팀은 생활복지119 ‘고양뚝딱’의 가장 큰 장점은 수리기사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고양뚝딱맨으로 일하는 수리 기사님들 역시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자활의지와 수리 역량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3개 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4~5건, 월평균 300건의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양뚝딱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이 많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수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수리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은 전등 및 형광등의 LED 교체다. 환하게 밝아진 집안 분위기로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싱크대와 화장실의 배수관 및 수도꼭지 교체, 창문과 문, 방충망 보수 요청도 자주 들어온다.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서비스 항목이 정해져 있어 수리가 가능한 영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도 생활복지119 ‘고양뚝딱’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 주는 좋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생활복지119 ‘고양뚝딱’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_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 수리범위 _ 전기, 설비, 냉난방, 안전, 위생, 소규모 수리, 기타 생활불편 등
- 신청횟수 _ 가구당 연 3회까지 신청 가능
- 신청문의 _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MINI INTERVIEW



정재혁 (고양뚝딱 수리기사)
자활사업단인 ‘고양뚝딱’ 수리기사 일을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20년 이상 인테리어 일을 해서 경력은 오래된 편이에요. 수리기사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할 때는 오늘처럼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 불편을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진 기술로 어려운 분을 도와주고,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앞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MINI INTERVIEW



주영배 (일산서구)
작년 겨울부터 싱크대에서 물이 샐는데 혼자 살다 보니 수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어요. 화장실도 누수가 발생해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임시방편으로 베란다의 수도를 사용했어요. 6개월 동안 싱크대를 사용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현관문도 보조 잠금장치가 고장 나서 불안하게 살았는데 ‘고양뚝딱’ 수리기사님들이 고쳐주시니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이용하라고 홍보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